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7차 정기회의록

일시 3/2(목) 13:30

장소 안암동주민센터/자치회관 4층 마을회의실

참석 김경서, 김기민, 김종환, 김희자(부의장), 박정근, 배정학, 서정례, 유제훈, 이선영,

이종안, 전미희, 홍수만(의장) 등 12명

위임 고경남, 박현숙, 송민기, 이미경, 이원교, 임진규, 최도용, 황선영 등 8명

신규 차정화(508단지 통장) 1명

참관 은현기(성북구 마을민주주의과)

기록 김기민(간사)

- 성원 확인 (명)

재적	26	출석	13	위임	8
----	----	----	----	----	---

※ 준비위원 재적 총원의 과반 참석으로 회의 성원

- 신규 참석자 인사 : 차정화 님 인사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2/15(수) 6차 정기회의록 (붙임)

- 낭독 : 김기민 간사
- 수정, 보완 없이 승인됨.

- 논의 안건

- 운영 규약(안) 수정안 논의 (붙임#1)

- 임원 자격 제한 규정 관련

- 김종건 준비위원님이 목사라고 직 밝혀주셨는데 듣고 놀랐다. 분과위원장, 운영위원은 가능하지만 대표급인 운영위원장, 부운영위원장 급은 말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의견 드렸었는데, 그 규정이 통과되면 더이상 활동하지 않겠다는 김종건 준비위원님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다. 그 분을 겨냥해서

제안했던 사항은 아니었다.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제안했던 것. 웬만하면 규약에 넣으면 좋겠지만 준비위원들께서 굳이 따질 게 있느냐, 없이 가자고 하셔도 따르겠다. (김희자)

- 정치인, 종교인은 시민이 아니라 공인이라 생각한다. 제일 위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임원급이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다. 운영위원장 직을 맡는 것은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종안)
- 임원 선임 자격 제한 두지 않고 회원의 의무로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하는 것을 절충해보면 어떨까. (김기민)
- 나도 김종건 준비위원님께서 목사인 줄은 몰랐다. 종교인은 공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자격 제한 두면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활동할 때 종교적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나 우려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조항을 만들어둬도 무리하게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정근)
- 개인 평가나 결론보다는 내세운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이 객관적 이유, 사례가 있느냐 문제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건가 고민해야 한다. 단장님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을지 말지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인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므로 회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건지,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중립성을 지키는 데 해가 되는 조항인지 고민하고 판단하여 규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김종건 준비위원의 발언 내용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김경서)
- 과연 종교인이 대표급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종교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임 사유가 됐을 때 수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종안)
-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율이고 개인이 선택할 문제.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고 강요에 의한 게 아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까지 한다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상 구성원들과 대립이 일어났다. 본인 의견 관철시키기 위해 그만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참석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유제훈)
-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법 중 하나는 다수결지만 의사 결정의 최고 원칙은 아니다. 소수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준비위원회는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소수의견 주장하는 구성원에게 이걸 자율 활동이니 원치 않으면 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협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 원치 않으면 나오지 말라는 건 과격하다.

(김경서)

- 저번 회의에서 조심스러웠다. 김종건 준비위원님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참여하셨고, 활동하시면서 종교색을 띄진 않았다고 판단한다. 개인 문제라기 보다는 이 문제가 협치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대표급 임원의 경우 그 중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부 자격 제한을 두는 것. 현재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옛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데, 네트워크 단체 중 모 단체 회원이 신천지 신도였고, 해당 단체와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종교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이에 대응하느라 적잖은 시간을 소비했다. 언론 공개되면서 성북구 이미지도 실추되었던 경험이다. 대표 직위라는 것이 한 단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직자 신분이라는 걸 개인적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교적 중립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그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김종환)
  - 미디어 네트워크 사례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한다. (홍수만)
  - 종교 단체는 아니었고, 단체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문제를 일으켰고 단체는 결국 그 단체는 네트워크에서 제명되었다. (김종환)
-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자체에 동의한다. 하지만 미디어네트워크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가 있다고 해도 종교적 편향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막는 것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좋고 본다. (김경서)

- 이 조항이 특정인 때문에 존치/삭제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 수정안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제한이라고 보는지 준비위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먼저 확인해보고 논의 이어가면 좋겠다. (김경서)
-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원 선임 자격 제한은 회본권 기본 제한인가에 대한 준비위원 의견/입장 확인.
  - 기본권 침해, 제한이 맞다 : 김경서, 배정학 (2명)
  - 기본권 제한이 아니다 : 김종환, 김희자, 박정근, 유제훈, 이종안, 전미희, 차정화 (7명)
  - 기권 : 김기민(서기/회의기록), 박정애(개인 일정으로 퇴장), 서정례, 이선영(늦게 출석), 홍수만(의장/회의주재)
- 규정 표결
  - 1안. 현 수정안 기조 유지
    - 1-1안. 원안대로 유지 : 부결
    - 1-2안.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인’(기존) →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 지도자’로 수정하는 안 : 참석자 전원 박수로 가결됨.
  - 2안. “대표급 임원에 대해 사전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회원의 의무에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임, 징계 등의 방식으로 사후 대응한다”  
 수정안 : 김경서, 배정학, 이종안, 전미희 - 찬성 4명으로 과반 확보 실패하여 부결됨
- 재편성 분과 조직 기준 참여 분과 재배치 : 분과 구성(안) 불임#2
  - 주민자치 : 김종환, 김희자
  - 교육 : 박정애, 혁신교육추진단
  - 도시환경 : 배정학
  - 건강 : 박정근, 서정례, 차정화
  - 복지 :
  - 문화 : 김경서, 이종안
  - 지역경제 : 유제훈
  - 기타
  - 센터(전미희 실장)는 내부 논의 후 결정.

- 준비위 내부 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 및 일정 논의
  - 준비위원 대상으로 하여 일회적으로 교육 우선 받아보고, 이후 정례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박정근)
    - 서울협치추진단에 협조 요청해서 1회 교육 진행해볼 수 있을 것. (홍수만)
  - 교육을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 구성해서 진행해보면 어떨지. (배정학)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업계획안 초안에 협치 리더 교육 등의 사업 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 (홍수만)
  - 협치 교육 내용은? (김경서)
    - 서울협치추진단에서 준비한 커리큘럼은 개념 이해, 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수만)
  - 1회 교육만으로 모든 준비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2번 정도 실시하면 좋겠다. (김기민)
    - 내부 교육 1회차, 준비위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 교육 1회차 총 2회차 실시 제안한다. (홍수만)
  - 준비위 8차 정기회의 이후 교육 일정 잡기로 함.
- 기타
  - 은현기 팀장 의견
    - 협치 영역이 수준 차이가 있다. 협의회 분과와 담당 부서가 만나는 자리 갖고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협치 영역 양적 확대를 위한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협치 민간 분야 관계자 참석하여 함께 만나는 자리 가지면 좋겠다.
    - 규약(안) 일부 검토 필요
      - 제1장 제5조(의사소통 체계 및 회의),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과 권리)에서 제5조가 중복 표기되었다. 목차상의 숫자 수정 필요.
      - 제2장 회원 : 회원의 자격과 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가입, 회원의 탈퇴, 회원의 징계 등 순서가 일관성 없이 되어 있어 내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혁신계획 예비계획. 행정 분야에서 준비한 계획 초안을 갖고 협의회 준비위와 조율 거쳐서 3월 중에 제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무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 계획 초안 만들었고 제출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미 다 초안까지 만들어둔 거라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나. 결국에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것 아닌가. 또다른 조직들과의 만남을 이야기 하는데, 관과 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박정근)
  - 시민협의회는 자생력을 갖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 마을계획 협치 업무 담당자로서 협의회를 행정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각 부서별로 개별 진행되고 있는 협치 단위들을 협의회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은현기)
  -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기존 협치 조직들과의 만남을 갖자는 것. (홍수만)
  - 시민협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민관 협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협치성북시민협의회(준)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것이다. (은현기)
  - 계획 수립도 안했고, 창립 총회도 아직 안한 상태. 지난 회의 참석해서 뒤로 미루어달라 요청해놓고 계획 먼저 다 세워놓고 협의하자는 건 뭔가. (이종안)
  - 협의회 최초 계획대로 3월 초 총회를 하면 좋았는데, 구청측 요청으로 미룬 거다. (박정근)
  - 협치성북시민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명단이 계획서에 다 들어가야 한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은현기)
  - 협의회 사업계획안은 이미 논의된 상태. 그 중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으로 풀 것과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풀 것들을 가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구성안에 지역사회혁신계획 TFT도 추가되어야 할 것. (홍수만)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보면 1~3유형으로 나눠놓았다. 3유형의 경우 민관이 함께 해야 하는데,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김종환)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지난 해 8개구 제출했고, 협치조정관 선임한 곳이 6개구. 성북은 협치조정관은 선임했지만 혁신계획은 아직 미제출 상태. 시민 중심의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계획을 낸다면 행정은 협의회를 민간 측 파트너로 생각하고 추진할 것. (은현기)

- 현재 준비위가 만나지 못했던 기존 협치 조직들은 마을민주주의과 중재로 만남의 과정을 가지면 되겠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예비계획 초안 논의는 현 준비위 임원단 중심으로 진행할지, 별도 TFT를 구성할지? (홍수만)
  - 1차적으로 임원단이 먼저 만난 뒤 별도 TFT 구성 여부 논의하여 결정한다. (홍수만)
  - 다음 주 초 임원단과 미팅 갖자. 구청측에서 마련한 초안 오픈하고, 추후 준비위 회의에서 논의하신 뒤 3월 중에 제출하면 좋겠다. (은현기)
  - 창립총회 미룬 상태인데, 선거 변수가 있어서 고민이다. (홍수만)
  -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해나가면 될 것 같다. (은현기)
- 창립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종안)
  - 현재 3월말~4월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 (홍수만)
- 협의회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 가운데 협의회에 참여가 필요한 단체들의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 구청측 뿐만 아니라 협의회 자체적으로도 작성해서 접촉하는 노력해야 할 것. 거버넌스 갖고 있는 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민관 협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포용해야 한다. 준비위원회로서 시민협의회 처음 구성할 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먼저 만들고 사업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보단 명실상부한 민간 측의 협치 조직으로서 시민협의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예비계획을 지금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계획 초안 마련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현재 협의회는 연혁도 짧고, 대표성이나 정통성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 (김경서)
  - 우리는 성북 민관을 포용하고 대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민민, 민관 협력을 통해 할 건 하고 해야 한다. (박정근)
  -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 뿐만 아니라, 초대가 필요한 단체들도 리스트 작업이 되어야 할 것. (김경서)

- 연간 일정표가 있는지? (유제훈)
  - 월 2회 만나는데 그 일정표라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 같다. (이종안)
  - 우리는 준비위원회다. 기본 계획 짜는 것. 창립총회 준비하는 과정. 의장, 간사가 임의로 짤 수는 없는 것. 답답하시겠지만 총회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미희)
  - 총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놓고 해야 하지 않나. (유제훈)
  - 준비위원 내부 교육 일정을 8차 정기회의 이후로 미루고, 다음 회의 안건으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연간 일정, 계획안을 논의해보자. 현재 사업 계획 초안 논의했고 뭘 할지만 정해둔 상태이고 일정은 논의가 안 된 상태. 우리가 무엇을 언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홍수만)
- 임원은 언제 선출하는지? (박정근)
  - 분과 구성을 통해 사전 선출이 되어야 할 것. (홍수만)
- 분야별 협치 간담회 일정 공유 (은현기)

분야	모임명	회의구분	일시	장소	비고
마을계획	마을계획단 단장모임	단장회의	3/10(금) 오전	삼선동주민 센터	
문화예술	공유성북원 탁회의	운영진회의	3/3(금) 10:30	성북문화재 단 지하1층 공유서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협 의회	전체회의	3/14(화) 16:00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주 민공동체(8 개 마을)	간담회	3/13~17	길음소리마 을센터 2층	
책임는성북	책임는성북 추진협의회	전체회의	3/23(수) 14:00		
복지	동복지협의 체연합회	대표자회의	3/24(목) 11:00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주민참여	주민참여예 산위원회	전체회의	3월중		
주민참여	주민자치위 원협의회				

- 회비 현장 납부 현황 : 김경서, 김종환, 김희자, 박정근, 배정학, 서정례, 유제훈, 이선영, 이종안 등 9명 90,000원



- 차후 일정
  - 8차 정기회의
    - 일정 : 3/15(수) 13:30 보문동 주민센터 2층 북카페 (안암로3길 35, 대광초교 부근)
      - ※ 장소 섭외 : 유제훈 준비위원 (완료)
    - 안건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연간 일정/계획 수립
      - 운영 규약(안) 5차 수정안 검토/논의
      - 지역사회혁신계획 예비계획 초안 내용 공유 및 검토
      - 준비위원 내부 교육 일정 논의
      - 기타
  - 준비위원 내부 교육
    - 3/15(수) 8차 정기회의 이후 일정 잡아 2회에 걸쳐 진행
    - 일정 후보안 : 정기 모임일인 3/29(수) 13:30 외 추가 일정 논의